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롬12:15

345

2015. 2. 15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오늘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벰전 2:9

2 2015년 주제 특집 인터뷰

4 사명자 대회 더 알고 싶어요

5 정신학원에 깃든 기독교 역사

6 아기나들이

교회일정

2/22 (주) 사명자대회를 위한

예수친구사역 서약식

2/23 (월) - 4/5 (주) 사명자대회

전교인 40일 새벽기도

3/1 (주) 성찬주일

3/3 (화) 늘푸른대학 1학기 개강

3/9 (월) 정기당회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tv.org

주님의교회



봄을 기다리는 이유

함즐함울 팀 기자 한 분이 후암동 언덕길에서 우연히
먹먹한 풍경 하나를 목격했습니다.

종일 거리에서 모은 파지 가득 실린 수레 끌고

오르막 길 힘들게 올라가는 어르신 한 분,

그분에게 아마도 늦겨울 하루 일용할 양식이 될 그 수레를
한 청년이 언젠가부터 뒤에서 밀고 있습니다.

‘춘래불사춘’이라,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은 이 스산한 봄날,

이 청년 수레 미는 걸음 만큼씩만이라도 진정한 봄 오기를 기다립니다.

목수, 톱과 끌과 망치로 섬기는 예수님 제자

2012년 첫 부활절 예배드라마를 본 성도들은 무대 위에 올랐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고깃배를 기억할 것이다. 당장이라도 물 위에 띄울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배를 만든 이, 김윤섭 집사를 만났다. 마침 주일 주차봉사를 마치고 들어온 그의 인상은 해맑은 소년 같아서, 50년이나 목수 일을 해온 사람 같지 않

았다. 만나고 보니, 교회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늘진 주차장 한쪽에서 혼자 이 연장 저 연장을 다스리며 무엇인가를 만들고 있던 바로 그 이였다. 전날에도 보령 성광 교회에서 교육관 내부 공사를 마무리하고 올라온 참이었다. > 2면으로

함즐함울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지난 2년간 유지했던 함즐함울의 1면 디자인을 2월 1일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골라주신 새 디자인으로 이번 호부터 바꿨습니다. 새 디자인은 제호 부분을 상자 형태로 모아 왼쪽에 넣은 것이 특징으로, 추천자 439명 중 187표(42.6%)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다만, 제호 로고는 브랜드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함즐함울

신년특집 |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2015년 교회 주제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삶 가운데 사명의 본보기가 될 사례를 발굴하여 미니 인터뷰 형태로 전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 1면에서

목수, 톱과 끌과 망치로 이웃 섬기는 예수님 제자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직장 후배가 되실 터, 목수 일의 좋은 점은?

“목수라는 직업은 마지막을 생각하고 시작하는 일입니다.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내 소신대로 일할 수 있어 좋지요. 적성에 맞는지 자투리 재료도 버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사용하여 다른 목수들보다 일의 능률이 훨씬 높은 편입니다.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와 은혜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이가 농어촌선교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은 3년 전.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 일을 더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이를 위해 기도하던 중,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진도와 완도의 미자립교회를 도와주자는 최재규 안수집사의 요청을 기도의 응답으로 받아들였다. 목수가 생업이었지만, 바로 그 생업을 위한 달란트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기에 2주간의 귀한 시간을 아낌없이 내놓았다. 마지막 방문한 완도 갈문리교회에선 뼈대만 남은 교회와 사택에 새 지붕을 올렸다. 당시 장모가 위독한 상태

여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아 갈문리교회 목사에게 기도를 부탁했다.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장모의 소천 소식을 들었다.

생업을 접어두고 남 돕는 일 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내가 잘 하고 못하고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 즐거운 일이고 중요하지요. 자신을 앞세우다보면 사명이 거창해 집니다.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생업을 제쳐두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이의 이 말은 이제껏 살아오면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었기에 가능할 터이다. 증조할머니부터 4대째 믿는 집안에서 자랐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똑같은 일을 하고도 괴로움이 올 수도 있고 기쁨이 올 수도 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마음으로 일하면 기쁨이 오지만



나의 이름을 위해 일한다면 힘들고 괴롭게 된다”는 그의 말이 예사롭지 않다.

직접 농어촌의 미자립 교회를 다녀보니 어떤가요?

“많이 어렵습니다. 경제적 도움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생색내기보다는 그쪽에서 꼭 필요로 하는 일을 직접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당장의 요기가 필요한 것과 같지요. 특히 사람간의 교류와 사랑을 통한 사역이 이루어져야 그 쪽과 유대감도 생기고 하나님 안에

서 형제자매 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돈만 덜렁 보내고 도왔다고 자족하는 것은 안 될 말이지요.”

짧은 인터뷰였지만, 본인을 드러내길 원치 않는 그이의 뜻 때문에 오히려 이야기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마치는 순간까지 농어촌교회의 어려움과 상황 등을 많이 소개해 주길 원하는 그이의 굳은 살 거친 손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분임을 보여주는 듯했다.

함글함글 정리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0

事件(사건)에 따른 節氣(절기)중 踰越節(유월절), 無酵節(무교절)

너희는 이레 동안 無酵餅(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有酵餅(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애굽기 12:15)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① 踰越節(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 히브리력 1월(니산, 아비달) 14일 저녁에 지켜졌다.

② 無酵節(무교절): 유월절 다음날

부터 1주일동안 지켜진 절기. 무교병을 먹는다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文字的(문자적)意味(의미)

★踰(넘을 유): ‘발, 발걸음’을 의미하는 足(발 족)에 ‘점차, 부드러움’의 뜻을 지닌 俞(그러할 유)를 결합시켜 ‘발걸음을 점차 빨리하여 높거나 넓은 곳을 뛰어 넘는다’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踰도 같은 글자이다.

★越(넘을 월): ‘달려가다, 뛰다’의 뜻이 있는 走(달릴 주)와 ‘도끼, 무기, 도구’를 뜻하는 戍(도끼 월)의 합자로 ‘리는 자의 머리위로 던진 도끼가 넘어 날아간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節(마디 절):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의 의미의 郎(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

류, 절약의 뜻도 있다.

★無(없을 무): 人(사람 인)의 변형체 ‘ㄱ’와 장작을 쌓은 모양 형태소 ‘𠂔’ 밑에 火(불 화)의 변형체 ‘灬’(연화 발)을 조합하여 ‘사람이 쌓여진 장작더미에 불을 붙이니 타 없어진다’는 글자를 만들었다.

★酵(술 익을 효, 교): ‘술 또는 술독’을 뜻하는 酉(닭 유)와 ‘효도 또는 보모’의 뜻이 있는 孝(효도 효)를 합쳐 ‘술독에 든 술을 보모가 아기 돌보듯 따뜻이 감싸니 익는다’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節(마디 절): 竹(대 죽, 대죽 머리)에 ‘나아가다’의 의미의 郎(곧 죽)을 결합시켜 ‘대나무가 자라 나아갈 때 생기는 것이 마디이다’라는 의미를 만들었는데 절기, 예절, 절개, 풍류, 절약의 뜻도 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6



겨울 긴 방학 마치고 체육관에서 만난 사랑나무 아이들 스스로 묶기 어려운 운동화 끈 꼭 여며주는 봉사자의 봄 님은 아이들 섬기는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목회 칼럼

우리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독교윤리실천운동에서 지난해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발표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기독교는 카톨릭, 불교에 이어 부동의 3위에 랭킹되어 있었다. 20대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신뢰하지 않는다가 44.6% 그리고 보통이라는 응답이 36%, 신뢰한다는 응답이 19.4%에 그쳤다. 1000명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있었지만, 신뢰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쯤이 기독교에 대해 그닥 기대하지 않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있다. 안타까운 결과이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반응 이렇게 냉혹하다.

크리스천들은 구별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다.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구별의 의미가 크게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사회와 분명 구별된 무엇이 있다. 그러나 이 구별의 모습은 청소년들이 말하는 왕따의 개념은 아닌 듯싶다. 오히려 이 구별로 인해 세상을 향해 진정한 인간됨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어린 구별의 모습을 잘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된 구별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다. 사회의 무관심을 넘어, 적극적인 반대의 표현이 그 증거이다. 이 사실이 무척 아프지만 한편 감사하다. 왜냐하면 무너지고, 왜곡된 우리의 모습을 누군가가 정확히 알려주는 관심(?)이 있다는 것이다. 이웃과의 막힌 관계를 풀어갈 때 단면이라 할지라도 그의 말속에 담긴 정확한 평가를 인정하고 그곳에서 풀어가려 하면 관계 개선이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이렇듯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오해와 왜곡이 있음을 알지만, 일면 함의되어 있는 진정어

린 조언을 인정하며 반응한다면 얽히고 설킨 관계의 실마리를 풀지 않을까 싶다.

한국교회 신뢰도의 여론조사의 결과는 신뢰회복의 큰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봉사 및 구제활동과 윤리와 도덕 실천이다. 줄여 말하자면 봉사와 윤리 두 축, 두 바퀴이다. 한국교회에 그리고 우리 성도의 삶에 이 두 바퀴가 다시 튼튼하게 맞춰지면 좋겠다.

경영학 교수로 알려진 슈만(Schoorman)은 데이비스 메이어(Davis Mayer)와 함께 쓴 90년대의 10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출판물로 등재된 논문 ‘조직 신뢰성의 통합모델’(1995)로 경영학회의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의 요지는 이렇다. “신뢰(trust)와 신뢰할만함(trustworthiness)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전제한다. 신뢰는 ‘상대방에게 기꺼이 나의 취약성을 드러내겠다는

의지(willing to be vulnerable)로 본다. 또한 신뢰는 능력(ability), 호의(benevolence), 언행일치(integrity)를 가진 신뢰할 만한 대상에게 나타난다고 보았다.”

사실 성도들은 ‘신뢰’라는 단어를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통해 수 없이 보여주셨다.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치부를 부끄러움도 모른 채 드러낸다. 그리고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맺음 역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과 신실함을 따라 행할 뿐이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깊이 자리잡은 신뢰, 신실함, 윤리, 섬김을 다시 한 번 회복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시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이라 믿는다.

유성훈 목사

주 안에서 ‘비상(飛上)’했던 청년부 겨울수련회

2015년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비상’을 주제로 지난 1월 29일에서 31일까지 설곡산 다일공동체에서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수련회는 이사야40: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고자 했다. 130여명의 청년들이 함께한 이번 청년부 겨울수련회에서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 김동호 목사님을 주 강사로 모셨다. 둘째 날 저녁 특강 ‘자녀의 권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만복의 근원임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특강 ‘천국의 사고방식’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통해 보는 어려운 사람



들을 돕는 사회적 기업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었다. 첫째 날 저녁에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원호 목사님께서 오

셔서 청년들과 다양한 주제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겨울수련회에서는 담임 목사님께서 질문 하시고 청년들이 대답

하는 특별한 순서도 마련되어 더욱 깊이 있는 대화가 이루어졌다.

이은지 청년부

사명을 위한 40일 여정, 사명자 대회 of 모든 것

사명자 대회에 대해 더 알고 싶어요

2월부터 사명자대회가 시작됩니다. ‘사명’은 그동안의 교회 훈련과 목적을 총 망라한 결과로 그 실천을 위해 주어진 올해의 주제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사명자 대회에 대한 궁금증을 모아, 담당 교역자인 조광민 목사의 친절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함줄함울**

1. 이번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 과 2009년에 있었던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과 어떻게 다른지요?

▶ 주님의 교회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입니다. “목적이 이끄는 40일”과 “사명을 향한 40일”의 여정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 비전 안에서 연속적인 것입니다. 7년 전 있었던 “목적이 이끄는 40일 캠페인”이 “하나님 나라 알곡 공동체”를 지향하는 기본 틀을 갖추도록 했다면,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은 그 기반 위에서 사명을 실천하는 역동적인 공동체로의 도약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의 캠페인입니다.

2. 사명자대회가 전 교인이 자신의 삶 속에서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면 그 사명의 실천에 중심을 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친구사역 교재를 사용하는지요?

▶ 사명자대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향하고 이루어왔던 사역들이 사명이라는 큰 우산 속에 함께 조화되는 것입니다. 그 기본틀은 겨자씨이고, 내용은 예수친구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을 훈련하셨고, 그렇게 훈련된 제자들이 또 다시 제자 삼고, 세상에서 사역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친구사역 훈련이고, 그 교재는 사명과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사명자대회는 이러한 교육을 통해 겨자씨가 함께 사역할 사명을 찾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친구사역 1단계가 훈련되고, 이를 통해 겨자씨가 활성화되면, 겨자씨가 사명공동체로 변화되는 것이 사명자대회의 목표입니다. 한편, 사명자대회 기간 동안 각 겨자씨가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조사된 사명지도 제공될 것입니다.

3. 겨자씨를 사명자대회의 단위로 삼는다고 들었습니다. 겨자씨 공동체 구성원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미 많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운용하게 되는지요?
▶ 겨자씨가 가지는 고유의 친교 공동



2월 8일부터 로비에 설치된 사명이 꽃피는 나무. 성도 누구나 자신이 생각하는 사명들 카드에 적어 나무에 걸수 있도록 했다.

체의 성격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개인의 역량에 따른 사역들도 계속 지속됩니다. 단지 변화가 있다면 한 겨자씨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참여하는 겨자씨 공통 중심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몇몇 겨자씨에서는 겨자씨의 고유 사역들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역들을 겨자씨 사역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 됩니다. 각 겨자씨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겨자씨에 속한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것은 은사사역팀에서 제공되는 “사명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겨자씨에 활발히 참여하는 성도들은 대체로 교회 안팎의 사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참여율이 낮은 성도들을 대상으로 어떤 특별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는지요?

▶ 일단 교구목사들이 아직 겨자씨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위해 계속 전화심방을 진행합니다. 더 나아가 매주 모임을 통해 목사님들과

겨자씨 인도자들이 함께 공부하고, 이때 참석하지 못한 겨자씨 구성원들을 계속 파악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기존겨자씨에 참석하도록 유도하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겨자씨를 점차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주일 직장인 겨자씨 모임입니다. 한편, 가정을 개방하는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를 위해 교회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5. 사명자 대회를 통해 겨자씨의 구성을 바꾸려 한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또한, 겨자씨 리더가 예친사 리더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 사명자대회를 위해 구성이나 리더자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사명자대회는 기존겨자씨와 기존인도자들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단지 새로운 겨자씨를 만들 때 인도자가 없는 경우 예친사를 마친 분이 적극적으로 리더자로 섬길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6. 사명자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현행 예친사와 12단계 성경공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 사명자 대회동안 겨자씨가 예수친구사역 1단계가 자연스럽게 훈련되므로 별도의 예친사 훈련은 없습니다. 단, 사명자대회가 끝난후 4월 8일부터 2단계 훈련이 시작되는데 이 훈련은 교구 안에서, 교구목사들을 통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예친사 훈련이 교구의 리더로 섬기는 일군들을 교구에서 찾아내어 양육하고 교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구조로 진행될 것입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7.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에서 왜 40일을 택한 것이지요?

▶ 성경적으로 40일은 하나님께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때 사용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은 이 40일을 사순절기간에 진행합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심에 참여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에 40일을 진행함으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본받아 사명을 찾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8. “사명을 향한 40일 여정”에서 성도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 가장 중요한 것 두가지를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40일 특별새벽기도에 꼭 참석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데 꼭 참석하셔서 개인의 사명과 겨자씨 사명, 교회의 사명을 위해 기도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매주 진행되는 겨자씨 모임에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이때 사명자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친구사역훈련 1단계가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함께 겨자씨가 사명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사역소식

사역보고

교사힐링데이



“2015 교사힐링데이”가 2월8일 주일 오후3시30분 중예배실에서 열렸다. 이번 교사힐링데이는 어린이분과와 청소년분과의 교사들의 부르심을 회복하고 교사로서의 발걸음을 축복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주제는 The Calling_교사, 아름다운 부르심이었다. 고등부 황재영 전도사의 찬양인도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사들 서로를 축복했다. 교육위원회 간사 장로인 김한중 장로의 격려사와 어린이분과 자유철 장로의 기도로 은혜가 더했다. 박원호 담임목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교사로서의 부르심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어린이

분과와 청소년분과에서 2015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2015년 교육위원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였다. 시와그림 김정석 목사는 임재, 주품에 등의 찬양을 통해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하며 힐링의 시간을 마련해주었다. 2015 교사힐링데이를 통해 주님의교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는 교사로 부르심 위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전보영 목사

아버지학교 사역을 마치고

매주일이면 교회복도에 푸른색 줄무늬 셔츠를 입은 성도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바로 아버지학교 헌신자로 봉사하고 있는 우리교회 가정사역팀 성도님들이십니다. 이번 아버지학교 강남 43기에는 50여명의 신자 및 비신자가 접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신청자는 30대에서 많게는 70대의 이시대 아버지이자 아들, 남편으로서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라는 아버지학교 슬로건아래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8일까지 5주에 걸쳐 우리교회에서 진행되었으며, 바로 오늘이 마지막 5주차 수료일입니다. 아버지학교는 5주간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아버지와 가정”이라는 주제로 울고 웃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수료식에는 지원자인 남편이 아내를 초청해 받을 닭아주는 세족식으로 성스러운 예식을 통해 서로 상처를 보듬고 서로간에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학교는 지원자와 헌신자 모두를 “형제”라고 칭하며 서로 허깅하며 인사를 나눕니다. 이는 강의기간에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가



정으로 돌아가 아내와 자녀에게 포옹하며 마음을 전하고 특히나 자녀에게는 매일 허깅과 축복기도를 해주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아버지학교도 학교이기 때문에 매주 아버지, 아내, 자녀에게 편지를 쓰고 “아내와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이유”를 생각하고 적는 숙제를 하며 아버지, 아내, 자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특히 많은 아버지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신앙적으로 성숙되었으며, 가정적으로 새롭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버지학교의 구호인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를 세 번 외치며 2015년 가정사역팀의 첫 일정을 마칩니다. **김명훈** 안수집사 / 가정사역팀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2

세브란스관

1895년 연지동으로 이전해올 때 학생은 13명이었다. 1903년에는 학생이 3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공간이 협소해서 20명으로 줄였다. 건물은 낮은 위치에 있어서 습기가 차고, 통풍이 잘 안되었다. 그러나 학교는 빠르게 성장하여 1908년 학생이 50명이 되었다.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했다.

학교는 새 건물을 위해 기도하며 미북장로회 선교본부에 재정을 요청했다.

세브란스 기념병원 설립을 도왔던 세브란스가 1만 5천 달러를 기부함으로써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1층은 흰색으로 먼 처리를 하여 2, 3층의 붉은 벽돌과 적절히 어울리게 했다. 지하실에는 방을 두 개 두어 과자를 만드는 곳으로 마련되었다. (1912, 루이스) 양철 지붕에 도머창(dormer window)을 낸 전형적인 르네상스 양식 건물로 1911년 완공되었다. 언더우드라는 이 건물이 당시 한국 내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근대적이며 미려한 건물이었었고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다고 적고 있다.

건물의 설계는 캐나다 건축가 고든(H. B. Gordon)이 했다. 그는 남대문 세브란스병원(1902), 승동교회(1904), 경신 웰스 기념관(1906),

YMCA 회관(1908), 새문안교회(1910) 등 근대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기념비적인 건축물을 설계했다. 그러나 고든의 이러한 건축물 중 현재 남아있는 것은 연지동 정신여학교의 세브란스관이 유일하다. 이 건물이 재건축되면 귀중한 건축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1911년 완공된 정신여학교 세브란스관

교 여성교육의 요람이었던 정신여학교 세브란스관은 문화재로 보존될 필요가 있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감

보령 성광교회 비전학교 인테리어 봉사

농어촌선교팀은 지난 2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지난 10월 골조공사만 마치고 진척을 못하고 있는 보령 성광교회 비전학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주중의 귀한 시간을 내어 5명의 교우들이 현장을 방문, 현장에서 숙식을 하면서 말끔하게 내부 공사를 마무리했고, 많은 교우가 성금과 현물로 지원했다.



어린이분과 부장단수련회

어린이분과 부장단수련회가 2월 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1층 제3집 회실에서 있었다. 부장단수련회는 초등1부 신주찬 전도사의 찬양 인도와 유년부 김세민 전도사, 소년1부 정원혁 전도사의 율동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소년2부 이태우 전도사의 레크레이션을 통해 웃음이 있고 따뜻한 시간이 계속되었다. 지유철 장로의 기도 후 어린이분과 신입교역자들의 특별한 특순이 있었다. 바로 랫잇비라는 작은 꿈트를 통해 신입교역자 각자의 특성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새로운 교역자들의 열정과 재치로 인해 함께 한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었다. 이번 어린이분과

는 부장단과 교역자의 변화가 많아서 서로 소개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중요했다. 김정형 목사의 인도로 각 부서별 소개를 통해 서로를 알고 기도제목도 나누었다. 또한 전보영 목사는 2015 어린이분과 연간계획을 나누고 어린이분과의 사역방향을 함께 했다. 2015년 새로운 교역자들과 함께 어린이분과를 통해 새 일을 행하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기대한다.

전보영 목사



아기나들이 : 2015년 1월 11일 4부 예배 서예지 아기

1. 하나님 사랑안에 믿음으로 자라는 예지가 되게 해주세요.
2.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고 밝게 자라도록 함께해주세요.
3. 사랑 많이 받고 또 사랑 많이 줄 줄 아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아빠 서승환, 엄마 권준미 (2014년 10월 30일생)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다면?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교회단신

서울 은퇴 목사회 2월 월례회



서울 은퇴목사 연합회 2월 월례회가 2월 10일 화요일에 주님의교회 중강당에서 열렸다. 서울은퇴목사 연합회는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곳에 거주하는 목사님들로 구성되었으며 280여명의 목사님 중에서 230여명이 참석했다. 주님의교회에서는 은퇴 목사님들 수고에 위로의 장을 마련해주었다.

함줄함줄

알립니다

▶ 2015년 호스피스 교육이 3월 19일~6월 11일까지 매주 목요일 신문로 각당 복지재단 강당에서 열린다. 교육비 12만원 중 본인 부담은 5만원이며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한다. 수료 후에는 한국호스피스협회 인증서를 발급한다.

▶ 입교 및 세례예식: 3/29(주일) 3부예배
-신청대상:교회등록후 6개월 이상된 성도
-교육기관:2/22~3/22(주) 오후 1시 30분~3시(3층 초등부실)

▶ 사랑의 수화교실 3기 초급반 모집
-기간:3/1(주일)~8/23(주일) 6개월, 매주일 1시 30분~3시(대화의 방)
-신청:1층 안내데스크

▶ 아기정원 15기 모집
-대상:생후18~40개월 아기와 엄마, 선착순 30명
-신청:3/1(주)부터 1층 사무실

2015 늘푸른대학 제7기 학생모집

입학안내

- 대상 : 만65세 이상 교인 및 지역주민 / 선착순 200명
- 등록일자 : 2015. 2/15(주일)~2/22(주일)
- 등록장소 : 주님의교회 1층 로비 접수처
- 등록금 : 4만원 + 생명사랑 후원금 1만원

*늘푸른대학 학생은 등록과 함께 (사)성김과나눔 특별회원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학사일정

개강 : 2015.3.3(화) 오전10:30

- 1학기 : 3/3~6/30 (매주 화) -17주-
- 2학기 : 9/1~12/1 (매주 화) -13주-

특별활동반
(13개 반)

- 성경읽기반
- 생활체조반
- 고사성어반
- 스포츠댄스반
- 찬양대반
- 통기타반
- 바둑반
- 탁구반
- 붓글씨반
- 뜨개질반
- 사군자반
- 시니어에어로빅반
- 노래교실반